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수험생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긴장 말고 후회 없이…노력의 결실 맺기를"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새벽부터 고사장 긴장감…학부모·교사들 응원 행렬
수험생과 뜨거운 포옹·덕담…눈시울 붉히는 모습도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광주에서도 새벽부터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서구 서석고등학교.

새벽 어둠을 뚫고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수능 한파'가 비껴간 포근한 날씨 속에 수험생들은 트레이닝복이나 반바지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긴장된 표정으로 고사장을 향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잠을 설친 듯 피곤한 모습도 보였다. 어떤 학생은 헤드폰을 낀 채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잡으며 교문을 통과했다.

고사장 입구까지 동행한 부모들은 '긴장하지 말고 해왔던 대로만 하고 와', '실수하지 말고 잘 할 수 있지' 등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수험생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거나, 시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자녀가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한 한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애 잘하고 오겠지' 등의 말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고사장을 찾은 김동수씨는 "시험이 다가오면서 아이가 흔들릴까 많은 말을 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으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찍부터 시험장을 찾아 제자들을 응원했다.

이들은 수험생보다 더 일찍 시험장에 나와 도착하는 제자들 손을 잡아주거나 교내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향해 양손을 흔들며 응원 기운을 전했다.

또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잘 챙겼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긴장감을 해소해 주었다.

7년여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지도를 맡아온 대동고 박정희 교사는 고사장에 도착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수험생들을 챙겼다.

고사장 출입문이 통제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박 교사는 남다른 감회를 내비쳤다. 그는 "수능 때면 수험생만큼이나 긴장이 된다. 늘 아쉽고 부족함을 느낀다"며 "제자들이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날 제34시험장 대성여자고등학교와 제28시험장인 국제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부모들은 시험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 와', '화이팅' 등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전화로 고사장에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담거나 교내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시선을 떼지 못하는 학부모의 모습도 보였다.

한편 올해 수능에는 전국적으로 55만4174명이 응시했다.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 2019학년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6개 고사장에서 3만2683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지난해보다 1896명 증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이모저모

시험장 착각 순찰차 타고 1분 전 도착…긴박했던 현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86개 고사장에서 3만2683명이 응시했다.

시험장 앞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수험생을 배웅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대망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응원하는 이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반복된 긴급호송

○…수능 당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고등학교 고사장에 수험생이 순찰차 창문을 두드려.

당시 고사장 인근 교통정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있던 상무지구대 직원들은 상황 파악에 나서.

북구 누문동에 위치한 광주제일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전남고등학교로 잘못 찾아왔다는 것.

이에 상무지구 대원들은 황급히 해당 학생을 순찰차에 태우고 광주제일고로 향해.

다행히 고사장 진입 제한을 2분여 앞두고 현장에 도착.

앞서 7시56분 보문고등학교 앞에서는 여학생이 "성덕고로 가야하는데 잘못 왔다"며 울먹여.

이에 광산경찰은 순찰차를 무전으로 호출, 약 9㎞ 떨어진 성덕고까지 사이렌을 울리며 이동.

13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을 알려주고 있다.

13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그 결과 평소 2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8분 만에 주파했고, 해당 여학생은 입실 마감 시간을 6분 남기고 현장에 도착해 무사히 수험장에 입실.

또 7시35분에는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자녀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가 동천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

경찰은 해당 가족을 순찰차에 태워 광산구 운수동 제29시험장인 보문고등학교까지 이동했고, 무사히 수험생에게 수험표를 전달했다고.

가족들은 경찰에 '덕분에 아이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며 연신 감사함을 전달.

광주경찰은 이날 수험생의 정시 입실 지원을 위해 17건의 도움 요청을 받아 13명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 신분증 및 수험표 전달 4건의 편의를 제공.

전남에서도 '수험생 이송작전'이 잇따라.

전남경찰은 교통·지역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총 353명을 배치해 시험장 주변 주요 교차로 및 수험생 이동로 위주 특별 교통관리를 해.

이날 전남경찰은 협장 수송 등 총 5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조카·삼촌·사촌까지 총출동

○…수험생 조카를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이 응원전을 펼쳐 눈길.

삼촌 최윤우씨(31)는 둘째 누나의 딸인 송예원양(19)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26지구 34시험장인 대성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이 자리에는 최씨와 그의 첫째 누나를 비롯해 사촌지간인 고등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2학년생도 참여.

이들은 수험생인 송양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떨지 말고 수능 잘 봐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응원.

최씨는 "평소 가족과 관계가 좋다. 조카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평소처럼 장난을 쳤는데 이 정도로 무덤덤할 줄 몰랐다"며 "그동안 조카가 시험을 잘 준비해 온 만큼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해.

수험생이 수험생 격려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1시험장인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이 또 다른 수험생에게 '수능 대박'을 응원·격려하는 진풍경이 펼쳐져.

대동고등학교 3학년 민경록군이 그 주인공. 민군은 이른 시간 고사장을 찾아 자신과 함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향해 '파이팅'을 선사해.

이어 같은 학교 친구들 3명도 응원 행렬에 합류, 다른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박'을 외치며 주먹을 쥐어 보여.

이 모습에 일부 수험생들도 함께 '파이팅'을 외쳤고, 다소 긴장감이 맴돌던 고사장이 웃음바다로 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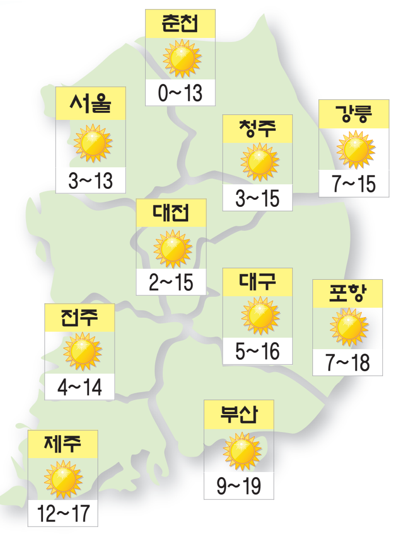
민군은 "같은 학교 친구들도 수능을 많이 치르기도 하고, 다들 긴장하는 모습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어 응원을 하게 됐다"고 전해. 윤용성 기자 yo1404@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해뜸	07:06	달뜸	01:18
해짐	17:27	달짐	14:21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6~15
목포	흐림	8~15
여수	흐림	9~17
순천	흐림	7~16
구례	맑음	4~16
해남	맑음	6~16
완도	흐림	7~17
흑산도	흐림	11~15
고흥	흐림	5~18
진도	맑음	8~15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좋음)
전남 (좋음)

목포	밀물(고)	09:32 / 22:11
	썰물(저)	02:43 / 14:55
여수	밀물(고)	05:12 / 17:20
	썰물(저)	10:50 / 23:52

만취 손님에 1000만원 바가지

만년필 ○…만취한손님에게 1000만원이 넘는 바가지 요금을 내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2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B씨(32)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2시 23분 광주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과다한 요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

만취한 손님에게 "당신이 먹고 마신 술과 음식값, 도우미 비용 등을 결제하라"며 1044만원을 결제 받았다고.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가 실제 계산해야할 술값은 10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 비윤리적 취재행태 규탄

"K인터넷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태를 규탄한다. 무단침입·점거 등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엄벌하라"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신공노)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오후 6시 이후 음주 상태의 만취한 인터넷 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청 당직실에 무단 침입하고 점거, 결국 경찰의 강제조치로 퇴청했다"고 주장했다.

신공노는 "이 사건은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직자에 대한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공공기관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며 "공직사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인 만큼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인은 신안군청을 상대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악의적으로 행정을 마비시킨 데다 언론 담당 공무원에게는 수시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단순 우발이 아닌 고의성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2일 신안경찰에 고발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